

원희룡 장관, “건설현장 정상화를 위한 원청의 노력과 책임 강조”

- 31일 한국주택협회 총회 참석, 주택공급 분야 간담회 개최 -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31일(금)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한국주택협회 총회에 참석하여 주택공급 분야 관계자 등을 격려하고, 불법하도급 문제 근절 등을 위한 원청의 적극적 노력을 당부하였다.

- 이날 행사는 국토교통 분야 스타트업 기업 설명회, 주택정책 방향에 대한 장관강연, 주택건설 산업발전에 기여한 관계자 등에 대한 표창 수여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본 행사에 앞서 개최된 간담회에서 최근 주택공급 업체가 겪는 애로사항 등을 직접 청취하였다.

- 이날 원 장관은 “자재비 상승 등으로 건설업계가 겪는 어려움에 공감한다”면서도,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근절에 있어 원청이 보다 강한 의지와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면서, “현장에서 서로 책임을 떠넘길 경우 원청사의 법적책임을 의무화 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 아울러, 원 장관은 “가짜 근로자, 전임자 문제 근절을 위해 전자출입카드제와 임금 직접 지불제도 신속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건설현장 정상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 또한, 건설사의 해외시장 진출 필요성을 제안하며 “우크라이나와 폴란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진출해야 하는 시장”이라며 적극적인 해외 수주지원을 약속하였다.

2023. 3. 31.

국토교통부 대변인